다산포럼

나, 지리산 종주하고 왔어!

김 정 남
언론인

지리산 종주를 하고 왔다. 노고지리 산우회가 종주 산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끼워 달라'고 뒤늦게 간청해서 가까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해마다 세석평전에 철쭉꽃이 필 무렵이면 지리산 종주를 한다. 올해로 27회째라고 했다. 나도 여건이 맞으면 그 산행에 편승하곤 했는데, 작년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 동행하지 못했으니 내게는 2년 만의 지리산 종주다.

내가 지리산을 좋아하고 지리산 종주를 탐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알피니스트여서가 아니다. 지리산은 올라가 정복하는 산이 아니라 걸어서 순례하는 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리산은 등반의 대상으로서 자연의 산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숨결이 담겨있는 인문의 산이다. 봉우리마다 전설이 있고, 12동천(洞天), 유현(幽玄)한 계곡마다 사연이 깃들어 있다.

노고단 아래 구례 광의에는 "책 덮고 지난 역사 헤아려 보니/ 글 아는 사람 구실 어려워라"는 절명시를 남겨 놓고 순국 자결한 매천 황현(1855~1910)이 살았고, 천왕봉 아래 산청의 덕산에는 "안으로 깨우치는 것이 경(敬)이요, 밖으로 결단하는 것이 의(義)라"면서 여덟 자" (內明者敬 外斷者義) 경의검(敬義劍)을 차고 자신을 지키는 가운데 벼슬을 마다했던 선비 남명 조식(1501~1572)이 머물렀다.

그러나 내가 지리산 종주에 진짜 집착하는 이유는 지리산 서남쪽 들머리 노고단에서 동북쪽 끝자락 천왕봉으로,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이어지는 그 멀고 아스라한 느낌의 능선을 마침내 답파하고 나서, 천왕봉에서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되돌아볼 때 맛보게 되는 황홀한 성취감과 벅차오르는 환희 때문이다.(지리산 천왕봉에서 느끼는 환희심을 나는 '천왕봉 하이'라고 부르고 싶다) 노고단에서 볼 때는 내가 과연 아득하게 먼 저 길을 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천왕봉에서 걸어온 길을 돌아켜 볼 때 내가 저 길을 걸어왔구나, 비로소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지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모처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지리산 주능선은 노고단에서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노고단은 그 버티고 서 있는 품이 늙은 시어머니의 기품과 위엄이 있고, 천왕봉은 하늘을 받치고 서있는 기둥의 기상이 있다. 노고단이나 천왕봉에서 바라보는 지리산 주능선은 소백산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바라볼 때 파도 치는 것 같이 겹쳐 보이는 산들의 모습이나, 고려시대의 시인 김황원이 대동강에서 읊었다는 점점산(點點山)의 느낌과도 전혀 다르다.

일일이 헤아려 보지 않아서 그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리산 종주를 한 것은 아마도 15회쯤 되지 않을까.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던 해에는 세석평전 아래 음양수 옆에 텐트를 치고 세석산장에 있는 소주를 동내면서 울분의 밤을 지새운 적도 있다. 그때따라 철쭉조차 피지 않아 지리산은 삭막했다. 우리는 종주 대신 지리산에서 가장 길고 험하다는 칠선계곡으로 내려왔다.

나의 지리산 종주가 매번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종주하러 갔으나 술타령만 하다가 내려온 일도 있다. 1970년대 말, 우리 일행(거시기 산우회)은 지리산 종주 산행을 위해 화엄사를 거쳐 노고단에 올랐다.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밤부터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졌다. 우리는 종주 산행을 포기하고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마침 산장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 산장 주인 함태식이 소주를 박스째 내와서, 그의 '문자'(文字)를 안주로 잔 수를 더해갔다. 조주일배(朝酒一杯)는 식욕증(食慾增)이요, 조주이배는 체력강(體力強)이라, 자고(自古)로 주불쌍배(酒不雙杯-술은 짝수로 끝내지 않는다)니 조주삼배는 불가피(不可避)요, 조주사배는 가사망(家事忘-집 일은 잊어라)이라, 일삼오칠구(一三五七九)로 술을 먹는데, 조주오배는 의(宜-마땅하다)요, 조주칠배는 가(可)라, 조주구배는 월불가(越不可-그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라.

제가 많이 마시고 싶으면 큰 잔으로 마시고, 적게 마시고 싶으면 작은 잔으로 마시고, 이렇게 시작한 술은 '가사망'을 지나고 '월불가'를 넘어서고 끝내 대취하도록 마셨다. 함태식이 술자리에서 쓰는 문자, 요두출수(搖頭出手-고개를 저어 술을 사양하면서도 손이 먼저 나가는 것), 양주목사(讓酒目射-입으로는 사양하면서 술잔의 향방을 쏘아보는 것)를 배운 것도 이 자리에서였다.

지리산 종주를 나에게 가르쳐 줬던 범하장(凡下丈) 이돈명 변호사도 가고, 술자리 문자를 일러 주었던 함태식도 얼마 전 갔다. 그러나 나는 체력이 허락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지리산 종주를 계속하고 싶다. 그리고 종주를 다녀와서 "나, 지리산 종주하고 왔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다. 그러나 과연 나는 그 소리를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

청춘 톡·톡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대가

이 삼 섭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학년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다. 어느새 사망자만 30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방역은 속수무책이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단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기본'이다. '기본만 지키면 본전은 찾는다'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은 격언이다. 그리고 기본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한국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더욱 무서운 건 앞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메르스에 대한 초동대처를 보면 한국이 정말 그토록 경제대국을 자처하며 선진국임을 자신하는 국가가 맞나 싶다. 대표적인 잘못된 대처로 여행자들의 중동 방문 이력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도 않은 점, 메르스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 및 방문과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접촉자들 모두를 격리하지 않은 점, 감염 의심자들에 대한 느슨한 격리, 시민 불안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두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들이다. 그 결과 지금 메르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격리 대상조차 모두 파악할 수 없게 됐다. 한 마디로 전국토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불과 1년 전에 우리는 수 백 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걸 지켜보았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세월호는 트라우마로 각인됐다. 세월호 참사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대가였다. 공무원과 기업이 유착하면서 범법 행위를 용인했고, 감독 기관조차 방관했었다. 그런 참사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으니 이 정도면 감히 망국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정부의 대응은 한결 같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 비판과 유언비어 확산을 막는데 골몰하더니 지금까지도 참사를 낳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는 목소리에 올가미를 씌우고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응대하고 있다. 지금은 어떠한가. 메르스는 확산되고 있는데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역에 적극 나서기도 전에 유언비어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엄포가 나왔다.

이쯤 되면 현 정부의 기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과 다르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여론이 퍼지지 않게 하는 게 모든 일의 가장 우선순위이자 기본인 듯하다. 그래야만 메르스와 싸우는 대신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들과 싸우는 지금의 모습이 설명이 된다.

사실 전염병에 대한 유언비어는 병에 대한 심각성과 정보의 부재에서 정비례한다. 메르스의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정부가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비밀에 부쳤을 때 각종 루머가 많이 나돌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병의 심각성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함으로써 유언비어의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개했을 때 시민들이 오히려 안심하고 스스로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본이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사스가 발생했을 때 인접국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한국 또한 사스 불안감에 시달렸었지만 3명의 추정환자를 낳는데 그쳤다. 이때 얼마나 한국이 사스 방역을 잘했던지 한국의 김치가 사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였을 정도였다. 이 때 사스 방역 과정을 보면 기본에 매우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그 때의 방역 매뉴얼은 어디에 있는가?

기 고

동구 원도심 부활은 광주의 미래!

임 영 일
광주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최근들어 광주시 동구 동명동과 푸른길공원 일대를 즐겨 찾곤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 닫은 점포나 공·폐가가 여기저기 들어서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멋진 카페와 공방, 게스트하우스, 문화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정말 원도심이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23만여 명이 거주하던 동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호남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분구(分區)가 진행되고 시·도청이 빠져나가면서 원도심인 동구는 침체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동구는 인구 10만여 명에 불과한 도시로 변하고 말았다. 필자는 두 차례 동구 부구청장 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원 도심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젊은이가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거듭했다.

광주는 지금 지역발전의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 동구도 그 중심에서 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4월 호남선 KTX 개통으로 광주~서울 간 이동시간이 90분대로 단축되면서 광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13년 국립공원 승격에 이어 2014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은 지난해 기준 국립공원 탐방객 순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광주의 대표관광지가 되었다.

오는 7월 3일 하계U대회가 개최되면 세계의 젊은이들이 광주를 찾고 그 중에서도 동구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을 다니려올 것이다. 또한 광주의 염원이자 동구의 자랑거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하반기에 개관하면 1000여 명 이상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연간 250만 명 이상이 전당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동구는 몇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 중이다. 첫째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다. 모두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동명·산수·지산동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충장로 4·5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둘째는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이다.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24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남동 일대를 아시아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 셋째는 인구증가 정책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요소라 할 수 있는 인구증가를 위해 월남·선교·용산지구에 6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신도시를 조성중이다.

또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학동3구역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으로 선정된 계림8구역 등 1만6000여 세대 규모의 15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더불어 공·폐가 정비, 공영주차장 확충, 소공원 조성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동구는 인구 15만 명 규모의 명품도시로, 호남의 미래발전을 이끌 핵심 중추로 다시 태어난다. 원도심의 부활은 곧 광주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성공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각 분야 전문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북한 U대회 참가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성공 개최에 빨간 불이 켜졌다.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광주 U대회에 북한이 불참을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메르스 여파로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에 북한마저 선수를 보내지 않게 되면 대회 성공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북한은 지난 3월 육상 등 6개 개인종목과 여자축구 등 2개 단체 종목에 나설 선수 75명 등 총 108명의 선수단 파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최종적으로 대회에 불참하게 되면 우선 조 추첨을 마친 여자축구와 핸드볼 등은 재추첨에 나서야 하는 등 큰 혼선이 예상된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엊그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지난 19일 조직위 이메일 계정으로 대회 참가가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불참 이유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설'이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메일 발송자는 북한대학스포츠연맹 전국만 회장으로 돼 있었으며 수신인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에릭 상트롱 사무총장 명의로 돼 있었으나 확인한 결과 FISU 측은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북한 선수단 참가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FISU 측에 아직 메일을 보내지 않았다면 북한의 대회 불참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이다. 통일부 등과 함께 여러 경로로 이메일에 담긴 북한의 진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의 선수단 파견은 대회 흥행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10년간 끊어졌던 남북 교류의 불씨를 살리고 정치 외적인 분야에서 남북관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 마음으로 북한의 참가 유도 노력을 기울이고 마지막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진대로 차선 큰 사고 나야 정비할 건가

광주 주요 관문인 무진대로의 차선이 어지러워 운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 건설업체가 방음벽 공사를 하면서 차선을 이리저리 그어 놓은 뒤 제대로 지우지 않은 탓이다. 돈벌이에만 급급하는 기업윤리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중견업체인 이 건설사는 최근 광산구 우산동 아파트 신축 공사의 일환으로, 무진대로 300m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차로 조정을 3차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16~18개의 차선을 '그렸다 지웠다' 했으나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차선이 그대로 남아 있어 운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경찰서에는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이 나서 재포장을 요구했지만 이 건설사는 재포장을 해 준 사례가 없다면서 거부했다. 심지어는 사고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명이 다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에 확약서를 써 주었다는 것은 사람이 다치든 말든 공사비를 아끼고 보자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후안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차선을 재조정하면 2000만 원이 들고 전면 재포장할 때는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관청인 광주시의 미적지근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계U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주변 도로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건설사에 재포장하라는 지시를 머뭇거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대형사고가 난 후 후회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진대로는 목포·나주 등 전남 지역을 오가는 차로 붐벼 일일 교통량이 수만 대에 이른다. 따라서 해당 건설사는 당장 도로를 전면 재포장하고 차선을 명확히 그어야 한다. 주무관청인 광주시 역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비를 빌다

시계를 돌려 조선시대로 가 보자. 농경을 기반으로 한 당시 기후 사정을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조선왕조실록'을 들춰 보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 국역 서비스(sillok.history.go.kr)에 '기우제'(祈雨祭)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모두 1661건의 기사가 뜬다.

이 가운데 세종 때가 199건으로 가장 많고 고종 186, 숙종 177, 영조 174, 순조 128, 중종 113건 순이다. 기우제는 영농철인 음력 4~6월에 집중돼 있다. 당시 가뭄이 극심하면 삼각산(북한산), 목멱산(남산), 사직단, 종묘 등 다양한 장소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경회루나 모화관 연못가에서 지낸 '석척 기우제'는 매우 이색적이다. 석척은 도마뱀 또는 도롱뇽을 뜻하는 한자말로, 비를 관장하는 용(龍)을 대신한다.

"석척아! 석척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며 비를 주룩주룩 오게 하면 너를 놓아 보내주겠다." 푸른 옷차림을 한 수십 명의 동자(童子)들이 도마뱀(도롱뇽)을 넣은 항아리를 버들가지로 두드리며 이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연상해 보라. '침호두'(沈虎頭)라 해서 용과 상극인 호랑이 머리를 한강에 집어 넣던 의례도 같은 맥락에서 치러졌다.

'도마뱀 기우제'는 조선시대 내내 궁중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시험적으로 행한 태종 7년(1407년) 음력 6월에는 "이틀 동안이나 빌었으나 비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동자들을 놓아 보내고 각각 쌀 1석씩을 주었다"고 한 반면 성종 21년(1490년) 음력 4월에는 "이날 비가 조금 내렸으므로 석척기우제 행향사(行香使)인 유자광에게 숙마(熟馬) 1필을 내려 주었다"고 기록돼 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도 영동지방의 올 1~6월 누적 강수량은 141.9㎜로 평년(360.3㎜)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가뭄이 심한 지역 농민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비를 빌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농사는 오로지 하늘에 맡겨야 할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여파 속에서 농민들의 바짝 타들어가는 가슴속을 시원스럽게 해 줄 한 줄기 비를 간절히 바란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